

# Issue

20131203 vol.119

# Briefing

## 생태환경자원을 생태관광명소로 개발이 필요

1. 생태관광활성화
2. 해외동향
3. 전라북도 생태관광자원 현황과 활용 잠재력
4. 정책제언

연구진

김보국 | 연구위원 |

정명희 | 연구위원 |

정용훈 | 연구원 |

#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 C O N T E N T S

### 생태환경자원을 생태관광명소로 개발이 필요



1. 생태관광활성화
2. 해외동향
3. 전라북도 생태관광자원 현황과 활용잠재력
4. 정책제언

## 생태환경자원을 생태관광명소로 개발이 필요

생태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어 전라북도 생태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찾는 생태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일평균 2만3,934명이 방문하여 164억원의 흑자를 기록함
- 람사르습지인 창녕 우포늪 역시 한국인이 가봐야 할 한국관광100선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생태자원이 우수한 지역이 관광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당시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있음
- 고창갯벌과 부안줄포만갯벌, 고창 운곡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전라북도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보전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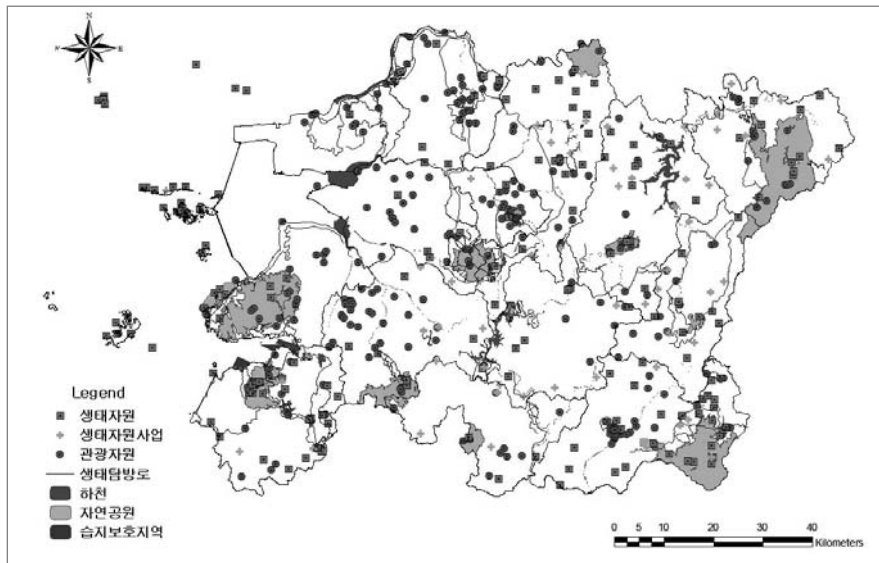
환경부는 생태관광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생태관광지정제”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등은 인증프로그램, 생태관광추진법, 에코호텔 등과 같은 생태관광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였다.

- 환경부는 2013년부터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지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지구 5개소를 선정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도 환경부와 함께 2010년 한국형 생태관광10대 모델([www.mustgo100.or.kr](http://www.mustgo100.or.kr))을 선정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호주는 생태관광 국가전략으로 1996년 세계 최초 “국가 생태관광 인증프로그램(The National Ecotourism Program : NEAP)”를 완성했으며 일본은 생태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해 2007년 생태관광추진법을 제정함. 코스타리카는 지속가능관광프로그램 인증제도하에 에코호텔제도를 운영하여 생태관광자원 보호와 지역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선정하였다.

- 환경부, 문광부, 전라북도, 각 지자체에서 제공된 생태관광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생태자원, 생태자원사업, 관광자원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결과,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생태자원은 약 234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약 126개소,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 약 271개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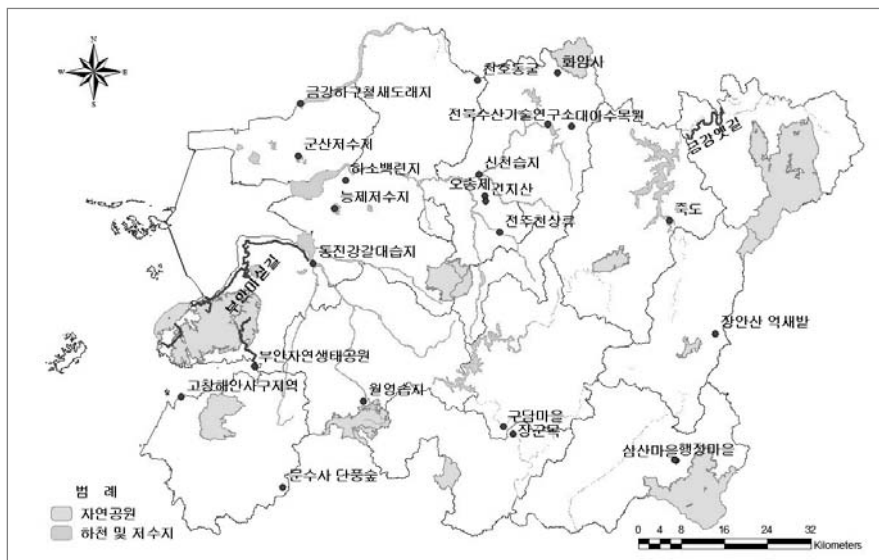
〈그림 1〉 전라북도 생태관광자원 분포도



-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들의 자문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생태관광자원으로 잠재적 가치와 활용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22개소가 생태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권역	자원 명
생태자원	고창해안사구지역, 문수사, 줄포만생태공원, 천호동굴, 대아수목원과 전북수산기술연구소 일원, 신천습지, 뜰봉샘일원, 금강하구철새도래지, 월영습지
경관자원	군산저수지, 만경농제와 하소백련지 일원, 완주 화암사, 부안마실길, 건지산과 오송제 일원, 장안산 억새밭, 금강옛길, 구담마을과 장군목 일원, 삼산마을과 행정리 마을숲, 죽도
생태+경관+자원	동진강갈대습지, 전주천상류유역

〈그림 2〉 전라북도 주요 생태관광자원



## 발굴된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보전과 개발을 위해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자원특성에 맞는 생태환경보전 및 관광지 개발 전략과 홍보 프로그램 개발
  -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전과 개발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 생태관광 자원화가능성이 높은 경우 스토리텔링, 생태해설 등의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생태환경자원의 가치가 높은 경우 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나친 자원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우수 생태관광자원을 환경부 “생태관광지정제”에 의한 생태관광지로 지정
  - 생태환경자원의 가치와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자원들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지정제”를 통하여 생태관광지로 지정받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생태환경자원의 적절한 보전과 개발을 위한 주민공동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 국토연구원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2005)”에 의하면 생태관광사업 성공요인으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관광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하고 있으며<sup>1)</sup> 환경부 역시 우수한 생태자원을 지역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정부·지자체·지역주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육성을 제안하고 있음
  - 이번에 발굴한 전라북도의 우수 생태환경자원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보전과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음
- 습지, 우수 경관지 등에 대한 정밀한 자연환경조사로 생태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 환경부는 2012년 생태경관우수지역발굴조사에서 장수 장안산의 생태보전가치를 확인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정읍 월영습지에 대한 환경부 정밀조사를 토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생태적가치가 높은 생태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습지, 우수 경관지 등에 대한 정밀한 자연환경조사가 추진되어야 하겠음

1) 최영국,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지역주민참여 유도를 중심으로-, 2005, 국토연구원

## 생태관광자원 22선



### | 군산 군산(옥산)저수지 |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일원
- 일제시대인 1939년 저수지로 조성되었으며 1963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2009년 개발된 곳으로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임



### | 고창 만들사구 |

-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만들리 일원
-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지역으로 갯잔디, 모래사구 등이 형성되어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해안선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함



### | 고창 명사십리 |

-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면 장호리 일원
- 고창군 구사포와 동해수욕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십리 해안선이 사구로 이루어진 직선형 백사장임



### | 고창 문수사 |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에 위치
- 천연기념물 제463호로 수령이 100~400년인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문수사 입구에서 문수사 종탁까지 숲을 이루고 있음



### | 장안산(역새밭) |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지자리 일원에 위치함
- 무령고개에서 약 3km에 장안산 정상이 위치하며, 중간부분에 역새밭이 있음. 역새밭까지 탐방로 상태가 좋으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 식생을 보임



### | 익산 천호산 천호동굴 |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상리 일원
- 천호산 기슭에 있는 호남지방 유일 석화동굴로 1965년에 발견되어 1966년 2월 28일 천연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되었음. 석화암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화암사 |

-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의 불명산 일원에 위치함
- 화암사 진입로 인근에 복수초군락지가 있으며, 화암사까지의 산책로 경관이 좋고 나무 등에 이름표가 붙여져 있어 생태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조성함
- 화암사 극락전(국보 제316호)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하양(기둥과 지붕 사이에 끼운 긴 목재)식 구조물로 조선 선조 38년에 지은 것임



### | 부안 줄포만생태공원 |

-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만 일원
- 부안자연생태공원이 조성중에 있으며 갈대가 습지식생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 해안갯벌이 부안줄포만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란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음





### | 김제 하소백런지 |

전라북도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청운사에 위치  
2만여평의 백런 재배지가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의 곳에 위치하였다하여 하소백런  
지라고 함. 인근에 있는 능제와 연계성 확보를 통한 개발이 필요함



### | 김제 능제 |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30년 동진농조에서 축조하였으며 99개의 귀(굽이, 귀둥이)를  
가진 특수한 저수지로 알려져 있음. 김제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만경 능제저수지 종합  
개발 추진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함



### | 구담마을 |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 일원  
마을내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섬진강 경관이 빼어남, 현재 자전거도로가 섬진강을 따  
라 만들어져 있어 자전거를 활용한 생태탐사 프로그램개발이 가능하고 주변의 장군목과  
연계 가능함



### | 장군목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일원  
섬진강을 따라 구르던 돌이 수천년 강바닥을 깎아 만든 모양이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  
음.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요강바위 전설이 있고 김용택 시인이 태어난 진메마을이 인근  
에 있어 연계 프로그램 기획가능



### | 건지산과 오송제 일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덕진동 일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조경단 인근의 편백나무숲, 전주물꼬리풀 복원지인 오송제가 주  
거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나 잘 관리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



### | 금강옛길 |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금강변 일원에 위치함  
전체거리 19km로 금강변을 따라 빼어난 경관을 따라 조성되어 있음. 자전거 및 ATVE  
기, 래프팅 등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 대아수목원(금강화군락지)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일원  
전국 최대규모(7ha)의 금강화 자생군락지로 4~6월사이에 개화함 수목원내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교육장으로 활용성이 뛰어나



### |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항리 일원  
종복원과 시험방류를 업무로 하고 있음. 주변 창포마을을 찾아온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하고 있음. 민물어류 등을 주제로 한  
체험공간 조성으로 활성화가 필요함



### | 동진강 갈대습지 |

전라북도 죽산면 연포리, 부안군 동진면 장동리 일원  
새만금사업추진으로 육화가 진행중인 제외지에 형성된 갈대군락이 넓게 펼쳐져 우수한  
생태경관을 이루고 있음. 2013.11월 제외 갈대축제가 개최됨





**| 부안 마실길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일원  
부안군 해안선을 따라 과거 해안초소길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탐방로로 우수한 해안경관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어촌마을 등과 연계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길로 인정받고 있음



**| 신천습지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일원  
만경강 상류와 소양천이 만나는 합류지역에 형성된 하천습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맑은 물과 습지가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고 있는 지역임



**| 전주천상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색장동 일원  
한벽루와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상류에 형성된 하천습지로 경관이 뛰어나며 인근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치명자산, 후백제 등)과 함께 어우러져 생태와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자원을 형성할 수 있음



**| 금강하구철새도래지 |**

전라북도 군산시 하구언  
해마다 10만마리 안팎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천수남, 주남저수지와 함께 3대 철새도래지 가운데 하나로 꼽힘. 매년 군산세계철새축제가 개최됨



**| 장수 뜬봉샘 일원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일원  
금강 발원지인 뜬봉샘을 중심으로 물체함관, 마실길이 조성되어 있음. 물체함관에서는 금강에 서식하는 어류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장수군에 서식했던 종들을 복원하는 사업(납생이 등)이 추진중에 있어 향후 중요한 생태자원보급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남원 삼산마을과 행정리 마을숲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와 행정리 일원  
삼산마을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100여 그루의 천연송과 인접해 있는 행정마을의 개서어나무 군락이 빼어난 마을숲 경관을연출하고있는 지역임



**| 정읍 월영습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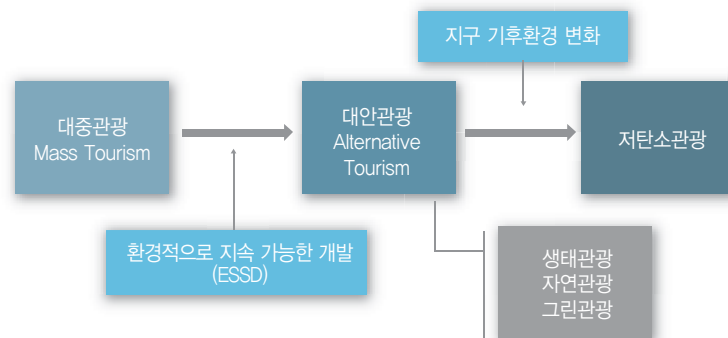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동 월영마을 일대  
30~40년전 다랑이 논이 휴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습지로 복원된 지역으로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조사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내륙습지로 평가받고 있음



## I. 생태관광 필요성

생태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어 전라북도 생태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생태관광지정제”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자연과 문화를 즐기고 배우면서 환경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생태관광(Eco-Tourism)이 대두었고, 관광산업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로 국가적·지역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생태관광 통계보고서(문광부, 2010)에 의하면 국내 생태관광 수요는 연간 약 38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참여자는 연간 약 1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
  - 생태관광에 대한 세계적인 성장과 국내 관광트렌드를 감안하면, 생태관광시장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



자료: 서울시정연구원(2012) 관광산업의 저탄소 녹색관광

〈그림 1〉 관광패러다임의 변화

- 문광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 문광부의 생태관광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은 2008년 랍사르 총회를 통해 생태관광자원으로서 깃벌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음
  -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대책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008년 12월, VIP 보고)을 통해 지역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유형별 생태관광 육성과 생태녹색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인프라 확충 정책이 구체화되었음
- 환경부, 생태환경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으로 생태관광 육성 본격화

- 환경부는 생태환경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생태관광 육성·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2013년부터 “생태관광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지역으로 양구 DMZ 원시생태투어, 곡성생태습지나들길, 울진 왕피천계곡, 남해 생태관광존, 제주 동백동산습지가 선정됨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생태관광기반 구축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 환경부+문광부

- 2008년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추진하면서 문광부와 환경부가 MOU체결하고 공동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음
- 생태녹색관광 10대모델 사업지 공동 선정(2010.2) 및 녹색관광 컨설팅단 발족(2010.3)을 통해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2010년 문화부와 환경부는 연안습지, 내륙습지, DMZ, 철새도래지, 산·강, 섬, 해안, 화석·동굴 등 8개 자원유형을 고려하여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진안고원마실길·데미샘이 선정됨
- 생태관광모델은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과 기존 대중관광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음

〈표 1〉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권역	자 원 명	
개 념	자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태관광	문화중심 관광에 생태환경, 지역문화 체험 강조
대상지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지역 등	슬로시티, 보호지역, 문화유산지역 중 대중관광지
모 델 사업지	○ (내륙습지)창녕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협약)	○ (해안습지)순천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대중관광지)
	○ (화석·동굴) 평창 (백룡동굴, 동강 등)	○ (철새도래지) 서산 천수만 (동북아 철새 중간기착지)
	○ (해안)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등)	○ (산/강) 소백산 자락길, 진안 고원 마실길·데미샘 (산과 4대강연계 지역)
	○ (서부 DMZ) 파주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추진지역)	○ (동부 DMZ) 화천 (PLZ 관광개발계획 연계 지역)
	○ (섬)제주 거문오름 (세계자연유산, WCC 유치)	-

○ 전라북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환경자원의 현명한 이용 필요

- 고창갯벌과 부안출포만갯벌, 고창 운곡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원이 주목 받기 시작함. 현명한 이용을 위해 체계적인 생태관광화 방안 모색과 지속적인 우수한 생태환경자원의 발굴·관리가 필요함




## II. 생태관광 해외동향

호주, 일본, 코스타리카 등은 “인증프로그램, 생태관광추진법, 에코호텔” 등과 같은 생태관광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였다.

### ○ 호주사례<sup>2)</sup> : 국가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 추진

- 호주의 관광산업은 호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산업으로 2010~2011년 기준 관광산업이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5.2%, 호주 총 고용시장의 7.9%를 차지함
- 1991년 관광부를 신설하고 관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1992년 국가관광전략(National Tourism Strategy : NTS)를 발표하고 생태관광 국가전략(National Ecotourism Strategy : NES)를 수립함
  - 생태관광산업 인증제도, 시장분석 및 연구, 에너지와 폐기물 최소화, 기반시설 개발사업, 생태관광 교육, 기초연구 및 모니터링, 통합적인 지역 계획, 생태관광산업 개발, 학회 및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1994년 생태관광 국가전략(NES)에서 인증프로그램을 최우선 실천사업으로 제시, 1996년 호주생태관광협회의와 호수관광사업자네트워크가 공동노력으로 “국가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The National Ecotourism Accreditation Program : NEAP)”을 세계 최초로 완성

〈표 2〉 호주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의 종류별 내용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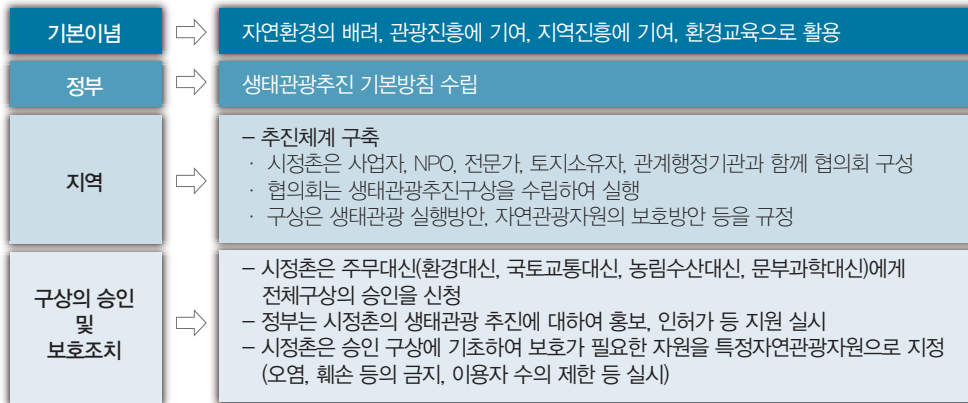
인증종류	로고	내용	요건
자연관광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자연지역에서 운영되는 관광	자연관광 관련 필수기준을 100%충족하는 관광상품
생태관광		대상 환경에 대한 흥미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경 보존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자연지역에서 운영되는 관광	생태관광 관련 필수기준을 100%충족하는 관광상품
우수생태관광		호주 내에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관광	생태관광 관련 필수기준을 100%충족하고 보너스 기준을 80%이상 충족하는 관광상품

### ○ 일본사례 : 생태관광추진법 제정

- 가고시마현 야쿠시마가 199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면서 유명 생태관광지로 부상하였으며 1998년 일본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2) 이유봉, 호주의 생태관광인증 관련 정책과 법제분석, 2012.10, 한국법제연구원

- 현재 일본은 양적성장을 넘어 질적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2007년 생태관광추진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기본방침 수립, 지역의 생태관광추진협의회 설치, 시정촌의 생태관광 추진계획 수립, 자연관광자원의 보전 등 네가지의 구체적인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림 2〉 일본 생태관광추진법의 개요<sup>3)</sup>

● 코스타리카 : 에코호텔제도 운용

- 동식물상이 다양(포유류 205종, 조류 848종, 파충류 218종, 담수어류 130종, 전세계 약 4%에 해당되는 식물)한 유명 생태관광지 중 하나로 관광객 중 1/3이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음
- 전 국토의 11.2%가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며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국립공원과 정부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관리하고 있음
- 지역주민을 교육을 통해 표본 채집, 분류 전문가로 양성한 후, 안내자로 계약함으로써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에코호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관광협회가 개발한 코스타리카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 인증제도 (Certification in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이하 CST)로 규제하고 있음
  - CST는 Physical-Biological(기업과 자연서식지 환경 간 상호작용), 관리정책 및 기업과 기업의 하부조직 내 운영체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얼마나 유도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고객과 기업 간 상호작용, 기업의 지역사회 및 일반주민들과의 상호작용 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평가

3) 김성진, 일본생태관광정책의 최근 동향, 한국관광정책 제29호, 2007.9, p74~77

- 1997년부터 환경대책과 지역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하였는데, 호텔과 관련된 세부적인 실천 조항을 보면, △기업은 전체 고용인의 60% 이상을 지역 내 인력을 이용해야 함 △기업은 친환경 상품과 재활용 제품을 사용해야 함 △기업은 경영 및 관리 부문에 지역사회 및 해당국가 출신의 사람을 고용해야 함 △기업은 지역생산품의 이용을 촉진해야 함 △기업은 지역 수공예품과 기타 지역생산품을 판매해야 함 △호텔은 객실에서 지역생산품을 사용해야 함 △손님에게 환경보호를 설득해야 함 △호텔은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요금제를 갖춰야 함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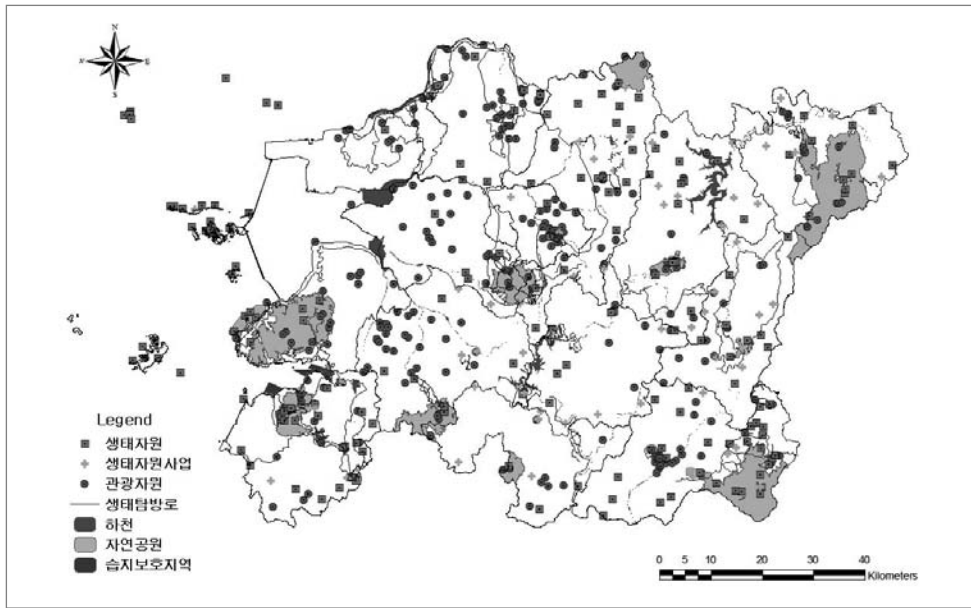
### Ⅲ. 전라북도 생태관광자원 현황과 활용잠재력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선정하였다.

#### ● 생태자원현황

- 환경부, 문광부, 전라북도,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생태관광 관련 자료를 통계 및 문헌자료를 수집한 후 생태자원, 생태자원을 활용 사업, 관광자원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생태자원은 약 234개였으며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약 126개소 이었고 이들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은 약 271개 있음
- 생태자원 :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습지보호지역, 해안사구, 자연동굴, 특정도서지역, 하구역, 철새도래지, 산, 봉, 국가하천, 지방하천, 고개, 계곡, 폭포, 숲, 섬, 해안, 호수·댐·저수지, 습지, 동·식물서식지, 천연기념물, 약수터, 오솔길, 경승지, 기타(라제통문, 말바위, 벚꽃길, 피바위, 기름바위, 나포십자들녘, 웅포차밭, 청보리밭&메밀꽃밭)
- 생태자원을 이용한 사업 : 한국형생태관광모델 사업지, 문화생태탐방로, 숲길(임도), 생태문화탐방로, 명품녹색길, 해안길, 지자체 마실길,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4대강 생태관광프로그램, 휴양림, 수목원, 생태우수마을, 복원우수마을, 산촌생태마을, 기타(후포천연해수탕, 춘향허브마을, 진안 에코에듀센터, 안덕마을, 학원농장)
- 관광자원 : 관광특구, 관광지, 전통사찰, 사적, 시도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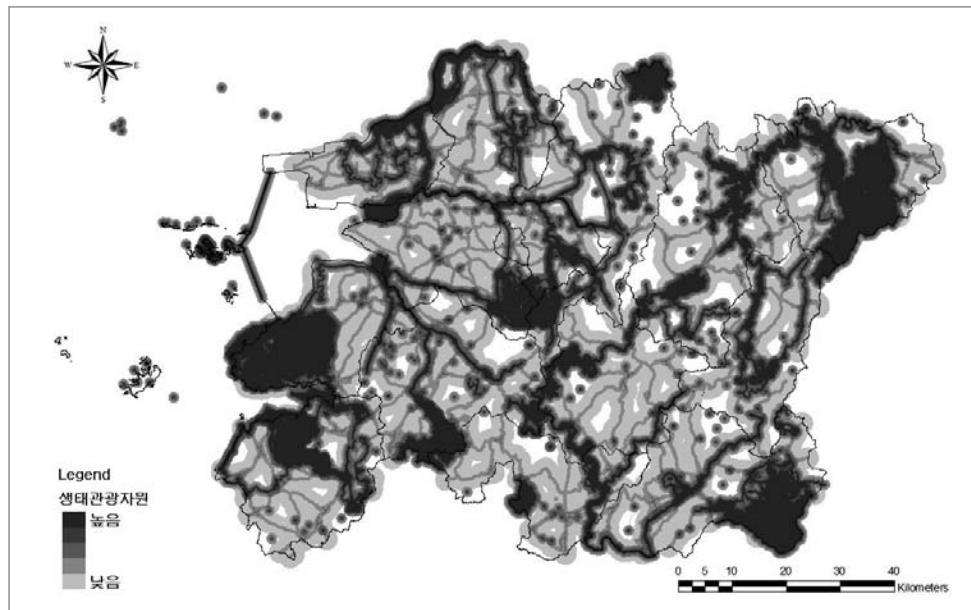
〈그림 3〉 전라북도 생태관광자원 분포도



● 생태관광자원 잠재력 분석

- 자원간 연결성(생태자원, 생태자원을 이용한 사업, 관광자원)과 관광객 접근성(주요 기반시설)을 중첩시켜 종합분석한 결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하천, 지자체탐방로를 중심으로 높은 생태관광자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전라북도 생태관광자원 잠재력



○ 전라북도 우수생태관광자원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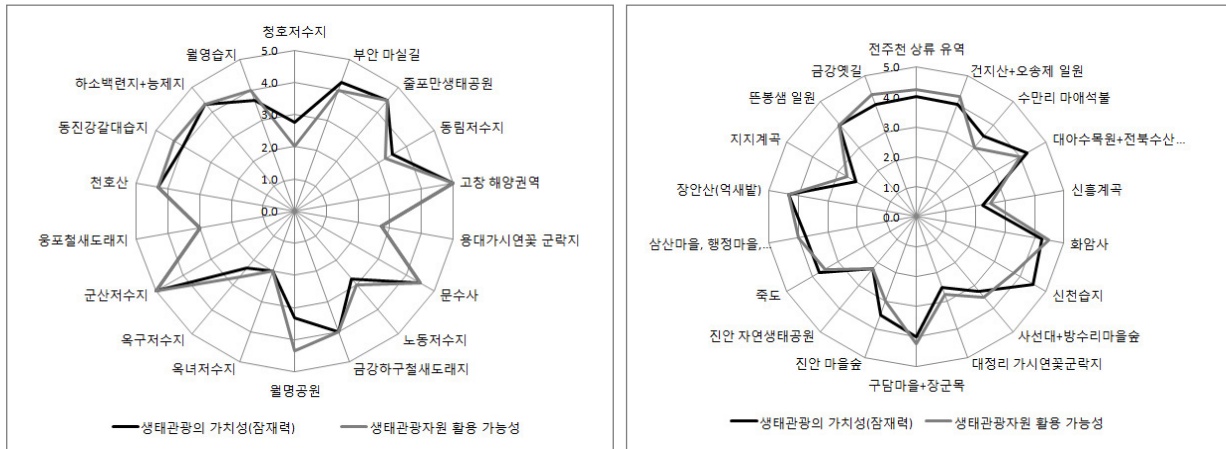
- 평가대상 생태관광자원 설정

- 생태자원 234 개 중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행정과 함께 생태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군 46개를 1차 선정함
-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생태적으로 관리와 프로그램이 운영중인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인공시설물에 해당되는 자원은 가급적 제외함

시군별	자원
전주시(3)	전주천 상류, 오송제, 건지산
군산시(5)	금강호 철새도래지, 월명공원(습지), 옥구저수지, 옥녀저수지, 군산저수지
익산시(2)	웅포 철새도래지, 천호산(천호동굴)
정읍시(1)	월영습지
남원시(2)	운봉 마을숲(삼산마을, 행정마을)
김제시(3)	동진강하구갈대습지, 하소 백련지, 만경능제
원주군(6)	신흥계곡, 회암사, 금강화군락지, 신천습지, 전북 수산기술연구소, 수만리 마애석불
진안군(5)	죽도, 진안자연생태공원, 마을숲(하초마을, 은천마을, 원반월마을)
무주군(2)	금강옛길, 적상산 피나무 군락지
장수군(3)	뜬봉샘, 장안산(역새밭), 지지계곡
임실군(4)	구담마을, 사선대, 대정리 가시연꽃군락지, 방수리 하천숲
순창군(1)	장군목
고창군(6)	문수사 단풍나무숲, 만돌해수욕장(사구식물), 동림저수지, 용대가시연꽃습지, 고창 갯벌, 노동저수지
부안군(3)	출포만 생태공원, 마실길, 청호저수지
	46개소

- 조류서식지, 갯벌, 생태습지, 하천, 식물자생지 등 1차 선별한 자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생태관광자원으로 잠재적 가치성 및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잠재적 가치성은 생태적 및 경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후보군 22개소를 선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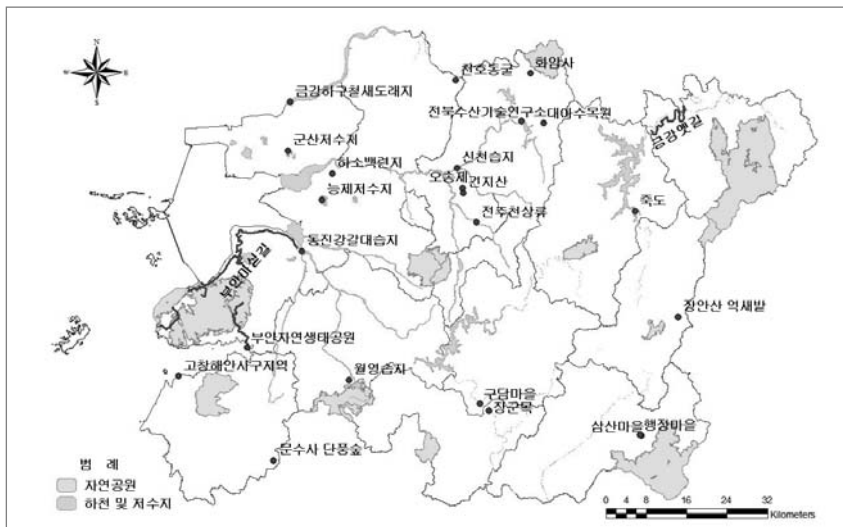
권역	자원 명
생태자원	고창해안사구지역, 문수사, 출포만생태공원, 천호동굴, 대아수목원과 전북수산기술연구소 일원, 신천습지, 뜬봉샘일원, 금강하구 철새도래지, 월영습지
경관자원	군산저수지, 만경능제와 하소백련지 일원, 원주 회암사, 부안마실길, 건지산과 오송제 일원, 장안산 역새밭, 금강옛길, 구담마을과 장군목 일원, 삼산마을과 행정리 마을숲, 죽도
생태+경관자원	동진강갈대습지, 전주천상류유역



〈그림 5〉 생태관광자원별 가치성(잠재력) 및 활용가능성



〈그림 6〉 생태관광자원별 생태적 및 경관적 가치성



〈그림 7〉 전라북도 주요 생태관광자원

시군	생태관광 자원명
전주시(2)	건지산과 오송제 일원, 전주천 상류유역
군산시(2)	군산저수지, 금강하구철새도래지
익산시(1)	천호동굴
정읍시(1)	월영습지
김제시(2)	만경능제와 하소백련지 일원, 동진강갈대습지
남원시(1)	삼산마을과 행정리 마을숲
완주군(3)	화암사, 대아수목원과 전북수산기술연구소 일원, 신천습지
무주군(1)	금강옛길
진안군(1)	죽도
장수군(2)	장안산 역새밭, 뜰봉샘일원
임실군(1)	구담마을
순창군(1)	장구목
부안군(2)	줄포만생태공원, 부안마실길
고창군(2)	고창해안사구지역, 문수사 단풍숲
	22개소

#### ● 현장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

- 주요 생태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 거점화와 자원간 연계성 강화방안 필요
  - 잠재력있는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장 조사결과 자원들이 집적화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어 활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거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생태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주변 자원들간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필요성 인식확산 필요
  - 경남 랍사총회 우포늪, 주남저수지, 전남의 경우 순천만습지와 정원박람회, 경기도와 강원도는 DMZ 생물권보존지역지정 추진, 충남 서천국립생태원 준공 등을 계기로 각 지자체들은 생태관광이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게 됨
  - 전라북도 역시 고창줄포만 및 운곡습지의 랍사습지 등록과 고창 생물권보존지역 등록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 이를 개기로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확산이 필요함
- 생태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자료를 통한 생태관광자원 발굴 필요
  - 생태관광에 기반이 되는 생태환경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자료가 부족함
  - 충청남도의 경우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연구”가 3개년(2007, 2008, 2009~2012)에 걸쳐 추진되고 있으며 부산시 역시 “부산시 자연환경조사(2001~2004)”를 3차년도에 걸쳐 추진된 바 있음
  - 그러나 전라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에 생태자원 DB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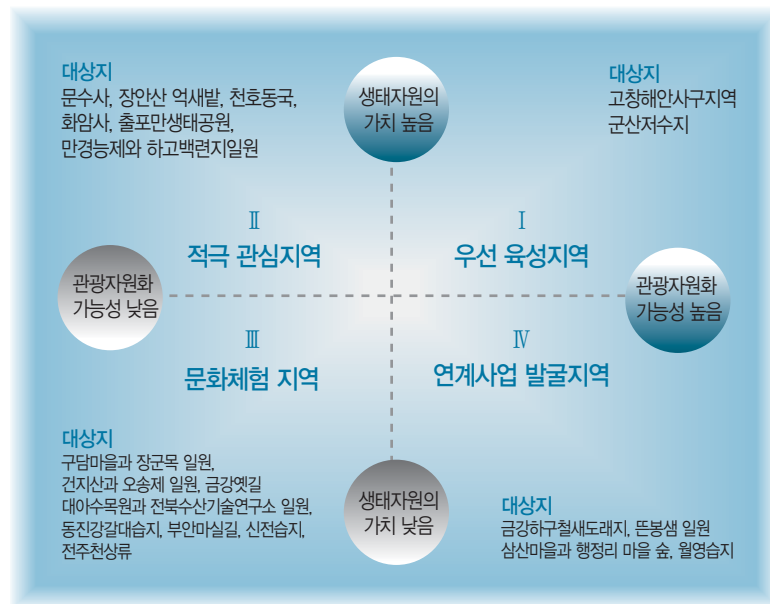
-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생태관광 추진 필요
  - 군산저수지 습지, 고창 만들사구, 전라북도 자생화(완주 금낭화, 변산 바람꽃, 적상산 피나무 군락지) 등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용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생태관광 추진이 필요함
  - 이용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 인해 보존이 필요한 자원들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보존의식을 높여야 함

## IV. 정책제언

발굴된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는 보전과 개발을 위해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 ○ 자원특성에 맞는 생태환경보전 및 관광지 개발 전략과 홍보 프로그램 개발

- 생태관광이 생태를 죽이는 관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체계구축이 필요함
- 생태자원 가치 높고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I) : ‘우선 육성지역’으로 선정하고, 전라북도의 대표 생태관광지로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지원 정책 추진
- 생태자원 가치 높으나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낮은 지역(II) : 환경해설 등 특수목적의 생태관광프로그램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홍보부족 등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는 관광객 관련시설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생태자원 가치 낮으면서 관광자원화 가능성도 낮은 지역(III) :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은 자원들로 생태체험과 문화체험을 접목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
- 생태자원 가치는 낮으나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IV) : 주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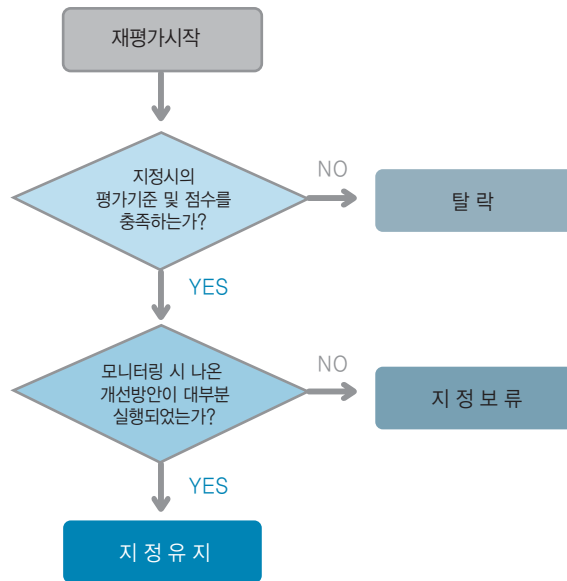
※ 자원들간 상대적 비교로 작성된 것임

- 호주 퀸즈랜드 사례

- 1994년 10월 부터 1997년 6월 까지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개 토론회를 통하여 생태적, 상업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생태관광계획을 수립함. 호주에서 자연관광 및 생태관광 인증 프로그램에 의해 평가받은 생태관광 상품의 약 52%가 퀸즈랜드 주에 해당함
- 생태관광계획의 네가지 주요 목표는 △ 환경보호 및 관리 : 연구와 계획, 모니터링, 관리를 통한 자연 및 문화 가치의 보호 △ 생태관광 산업 개발 : 생태관광 개발 지원을 위한 시스템 및 법제 환경 조성 △ 기반시설 개발 : 자연 및 문화자원의 가치 감상과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 제공 △ 지역 사회 개발 :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혜택 보장 및 환경의식 고취 임

○ 우수 생태관광자원을 환경부 “생태관광지정제”에 의한 생태관광지로 지정

- 환경부는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생태관광지정제”를 통하여 생태관광지로 지정하고 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재평가)를 통하여 지자체 스스로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유지·관리하고 지역공동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따라서 전라북도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생태관광자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



<그림 8> 환경부 생태관광지 재평가과정<sup>4)</sup>

○ 생태환경자원의 적정한 보전과 개발을 위한 주민공동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 환경부는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관광, 상품, 서비스 등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정부·지자체·지역주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육성할 계획임
- 국토연구원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2005)”에 의하면 생태관광사업의 성공요인으로 우수한 관광자원 및 관광프로그램, 적극적인 마을지도자의 존재, 정부의 적절한 지원 및 관광사업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하고 있음<sup>5)</sup>

4) 최희선, 생태관광 지정제도의 운영방안, 2013.5.22, 전라북도 생태관광기반 구축방안 간담회

5) 최영국,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지역주민참여 유도를 중심으로-, 2005, 국토연구원

사례	주요관광자원	주민참여활동	관광사업의 성공요인
돛도리현 사구	· 자연사구 · 해안식생	· 시구관련 체험관광 관리 역할 (예 : 체험소개, 해설, 상품판매, 이벤트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 등)	· 지역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오이타현 유후인정	· 온천 · 농촌마을	· 지역주민조직체를 통한 마을만들기 조직활동 (예 : 보양온천지 구상추진위원회)	·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 다른 관광지와의 차별화 전략(지역의 개성화 추구) · 지역의 인재육성 ·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 지역주민의 주체의식과 민관협력 분위기
미야자키현 아야정	· 광엽수의 천연림 ·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 생산자 직접 판매 · 체험관광 관리역할	·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 사업목표의 일관성과 사업의 지속성 · 마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 주민의 의지와 자발적 참여
오이타현 오야마정	· 농촌마을 · 유기농산물	· 지역농산물 생산자 직접 판매 (예 : 매실, 밤 등)	·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 지역의 인재육성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 지방정부와 농협의 보조적 역할

자료 : 최영국,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지역주민참여 유도를 중심으로-, 2005, 국토연구원

● 습지, 우수 경관지 등에 대한 정밀한 자연환경조사로 생태관광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 환경부는 2012년 생태경관우수지역발굴조사 결과에서 장수 장안산이 생태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확인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음
  - 백두대간과 접해 있으며, 급애(절벽)와 폭포, 포트홀로 구성된 산지계곡지형과 보전상태가 양호한 식생이 어울려 수려한 경관을 보이는 산림 생태계를 수달, 담비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11종을 포함한 동식물 총 956종의 서식이 확인됨
-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정읍 월영습지에 대한 환경부 정밀조사를 토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함
  - 내륙습지인 월영습지는 환경부 정밀조사결과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있는 절대보전등급 I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 I 급인 구렁이, 수달과 II 급인 말뚝가리, 수리부엉이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4종 등 118과 25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